Global Dairy Report
글로벌 낙농뉴스
해외 정책동향 및 낙농뉴스

2021.2.8 | www.dairy.or.kr | 통계조사팀(044-330-2072)

[정책동향] 英, 새로운 낙농행동규범 제정 추진

– 원유 공급계약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영국 정부가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간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낙농행동규범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정부와 위임 행정부는 유가공업계가 원유 공급계약시 낙농가들에게 예고 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등 거래교섭 우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낙농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목적으로 산업관계자들을 중심으로 12주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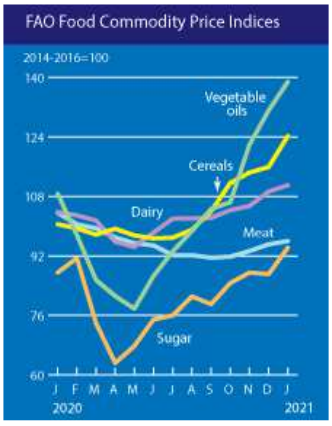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0년 새롭게 개정된 농업법 제29조항(농산물 구매자의 공정거래에 관한 의무)을 근거로 낙농행동규범에 관련된 표준을 제정함은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낙농가와 유가공업계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식품농림부(DEFRA) 장관은 "새로운 규범을 통해 공급망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낙농가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Dairy UK, 낙농가조합 등 낙농업계도 낙농가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조건이 보장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2월 4일자 〉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8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가

– 1월 지수 1.6% 상승…식품가격지수도 4.3% 올라



지난 12월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6% 오른 111포인트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전년동기대비 6.9% 상승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유제품 구매량이 급증하고 주요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버터 및 전지분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지분유도 수입 수요는 증가한 반면 서유럽 국가의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큰 폭으로 상승했던 치즈 가격은 유럽내 판매가 제한되고 미국의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폭 하락했다.

FAO 식품가격지수는 전월대비 4.3% 상승한 113.3포인트로 8개월 연속 상승한데 이어 지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설탕, 곡물 및 유지류 가격이 크게 오르며 가격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2월 4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